■ 기아차 임금협상 2년 연속 무파업 타결 의미

"성과는 함께 나눈다" 지역민 모두가 박수

소모적 탐색전 피해 '속전속결' 16일만에 합의
파업 변수 해결 광주공장 50만대 돌파 '기대'

기아자동차의 임금협상 무파업 타결은 노사가 과거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탐색전을 피하고, 곧바로 집중 교섭을 통해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의 생산손실도 없고 직원의 임금손실도 없는 윈-윈 결과라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도 과거 파업의 대명사였던 기아차가 협력적 노사관계로 변화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협상 타결까지 16일최단기간 마무리=기아차는 지난 7일 노사 상견례 이후 역대 최단 기간인 16일만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분규 타결'과 '7년만의 휴가 전 합의'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번 협상이 빠른 결과를 도출한 데는 무엇보다 노사 양측이 상호 의사를 적극 수용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이어간 데 따른 노고를 파격적인 임금 제시안(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300%+600만원)으로 인정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임금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어졌다. 또 9월 초 임원(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휴가 전 합의를 이끈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조도 주간2교대제 양보=광주공장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주간연속 2교대제도 진전된 성과를 거뒀다.

노조는 현행 '주야 2교대제'가 심야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주장했고, 사측은 생산능력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협상에서 올 연말까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에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범운영해보고 발생하는 생산능력 손실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생산량 보전을 위해 설비투자와 가동시간 확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자는 것이다.

광주공장 노조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열흘간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기대엔 못 미치지만 조합원 건강권을 지키는 시발점으로 의미를 갖고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찾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공장 50만대 돌파도=지난해 사상 첫 40만대 생산을 돌파한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48만3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능력 50만대 구축사업을 성공리에 마쳐 생산 목표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높여 잡은 것이다.

가장 큰 변수로 여겨졌던 임협이 '무파업 타결'로 해결되면서 광주공장의 생산목표치를 달성은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광주공장은 올 상반기에 목표치의 절반 이상인 25만대를 돌파했다. 스포티지R이 9만183대로 가장 많았고, 쏘울이 8만6849대, 봉고트럭 5만1902대, 뉴카렌스 2만1070대, 버스·군수 2127대 등 올들어 6월 말까지 25만2131대를 생산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광주공장의 양산이 순조로운데다, 무분규 임협 타결로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이 없어진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생산 목표인 48만대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며 "최대 생산능력인 50만대 돌파도 넘볼만 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프로야구 올스타전 마케팅 윤석민·이범호·로페즈 선수 등 기아타이거즈 올스타전 출전 선수들이 지난 23일 서울 잠실경기장에 마련된 '쏘울 GDi' 전시차량 앞에서 기아차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진로 '情나눔 참이슬봉사단'
보치아클럽 대항전 진행 봉사

(주)진로(대표·윤종웅)임직원과 지역대학생 33명으로 구성된 '진로 情나눔 참이슬 봉사단'은 최근 북구 동림동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린 '2011 제2회 광주광역시보치아클럽대항전' 행사에 필요한 심판요원과 진행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진로 情나눔 참이슬 봉사단'은 매월 2회씩 광주천 정화활동, 무등산 등산로 정화활동, 틔움 복지재단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며 6개월 단위로 기수별 활동을 마무리 한다. 현재 3기에 걸쳐 99명이 수료했다. 특히 이들은 (사)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타와 연계해 매월 2회 복지시설 노력봉사, 독거노인 도우미봉사 등 주요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진로 情나눔 참이슬 봉사단'은 기수별 응모 인원이 150여명에 이르는 등 면접을 통한 선발을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45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2	15	20	24	30	38	2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882,138,952	13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1,654,873	31
3	5개 숫자 일치	1,185,671	1,612
4	4개 숫자 일치	50,000	74,696
5	3개 숫자 일치	5,000	1,181,075

국내 金값 진정세

며칠 사이에 반복해서 최고치를 기록하던 국내 금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금지금업체인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 소매가는 살 때를 기준으로 3.75g(1돈) 당 21만78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전날보다 1100원 하락했다. 앞서 19일 21만945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일 21만7250원으로 떨어졌고 21일에는 소폭 상승한 21만8900원이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간 인수·SPC 대출 금지"
〈특수목적법인〉

유동성 부족 저축銀 정부직권 영업정지…금융위 입법예고

저축은행간 인수가 사실상 금지되고,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대출이 차단된다.

유동성이 부족해져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부가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져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저축은행그룹'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계열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공동대출해 동반 부실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2년 내 합병을 전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배준수 과장은 "하반기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설 만큼 여유 있는 저축은행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동펀드'로 위장한 '단독펀드'를 만들어 대출 또는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대출하는 등 각종 우회대출도 차단된다.

저축은행 계열이 공동 투자한 사모펀드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 사모펀드에 대해선 대출한도와 유가증권 투자한도에서 단독펀드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대외 변동 요인 해소 국면
자동차 등 실적 호조 지속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대외 악재가 하나둘씩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주 열린 EU의 긴급 정상회담에서는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핵심 내용은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금리 인하(5.5%→3.5%), 구제금융 상환기간 연장(7년→15년), 민간투자자 참여 확대,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권한 확대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 1586억 유로다. IMF와 EU가 1090억 유로를 지원하고 민간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496억 유로를 추가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그리스는 국채 만기도래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긍정적이다. 미국 경기는 견조한 제조업 업황과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복을 재개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주요 제조업 지표들이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 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와 ISM제조업 지수가 상승 반전한 데 이어 지난주 발표된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다.

국내 증시도 다시 한 번 기회를 맞이했다. 견조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의 대외악재는 주가의 상승 탄력을 지속적으로 둔화시켜 왔는데 이제는 대외적 변동성 요인들이 해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의 완화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매패턴 변화로 즉각 나타나고 있다. 7월 중순부터 8일 연속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주말 1600억원의 순매수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다시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2/4분기 실적부진은 이번 주에도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의 어닝쇼크는 차치하더라도 2/4분기 전반적인 실적부진이 하반기와 2011년 전체 실적전망에도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시가총액 규모별로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장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지수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까지는 대외변수나 경제지표들에 대한 확인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8월 초반까지는 지수보다는 종목선택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높은 기대치가 문제일 뿐 기존 주도 업종들의 절대 실적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수혜와 실적 호조세 지속이 기대되는 자동차·정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세계 뱀장어 박사들 광주 온다
오늘 라마다호텔서 국제심포지엄

대표 보양식품인 뱀장어 양식의 비법을 전하기 위해 '뱀장어 박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뱀장어 생산자단체인 양만수협(조합장 김성대)은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최근 뱀장어 양식의 발전'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은 많은 경험을 쌓고도 뱀장어 생태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자들에게 생태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이다.

세계적 권위자인 일본 도쿄대 쓰카모토 카즈미 교수는 뱀장어 인공수정과 치어 생산 현황 등을 발표한다. 또 국내 최고 권위자인 충남대 해양학과 이태원 교수는 뱀장어의 암수 구분·나이 판독 등 전문지식을 전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大 개강 (Teps+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8월 1일